

# ‘전주發 청년건강검진사업’ 업그레이드

### 정신건강·비만·금주·절주 등 5대 청년 건강문제 초점 시, 내년부터 검사항목 선택 등 ‘맞춤형 지원사업’ 펼쳐

전북 ‘전주發(發)’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기초건강검진과 정신건강, 비만, 금주, 절주 등 청년들의 5대 건강 문제에 집중해 ‘맞춤형 청년 희망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난 민선 6기 청년·대학생 관련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시는 앞서 2015년부터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봐왔다. 새롭게 시행될 전주형 청년 희망 검진사업은 기존과 달리 청년들이 원하는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 2회까지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검진 항목도 비만측정, 빈혈, 고혈압, 공복혈당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영양과잉 및 결핍,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성인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정신건강과 비만,

금연, 절주 등의 특화된 건강검진사업을 대학교와 직업학교, 고시학원, 전통시장 청년물 등 직접 청년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방문해 상담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업과 학업, 생활의 3대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에 따르면 직장입사와 달리 그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등도 내년부터는 전주지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진 항목은 비만과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 치아우식증 등으로 2년에 1번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대 이상만 적용됐던 정신건강 검사도 20~30대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의 전주시 청년건강검진사업과 보건복지부 방침의 장점을 결합한 전주형 청년건강검진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 성과를 거둬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일부 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건강검진 요구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며 “전주시만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건강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항만역사관’ 건립 본격 착수

### 장미동 내항 일원 120억 투입 2022년 완공기로

군산시는 장미동 내항 일원에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항만역사관’ (조감도) 건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산시는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항만역사관을 완공할 예정으로 12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항만역사관에는 항만·역사체험관을 비롯해 교육·전시공간,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랜드마크 기능과 함께 야간 불거리 등 체류형 시설을 갖춰 수변도시 특성에 맞는 핵심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항만역사관에는 일제강점기 호남·충청 일부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 수탈지역이었던 군산시의 역사적 아픔과 군산항의 다양



한 변천과정 등이 전시돼 항만의 역사와 무역의 중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항만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만기능의 약화 등으로 내항은 쇠퇴를 피할 수 없었으나 부잔교와 호안 등의 문화자원과 의미 있는 항만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라며 “항만역사관이 건립되면 군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기성 기자 nogusu@



고창 푸드마켓 자원봉사 발대식. 고창군 신림면은 최근 면 청사에서 푸드마켓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봉사 기관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면에 기부된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고창군 제공>

# 도로 제설장비 추가 구입 등 익산시, 동절기 설해대책 마련

익산시는 11월부터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해대책을 마련 운영한다. 시는 200개 노선 600km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설장비 15t 2조와 5t 2조, 소형 제설장비 29조를 추가로 구입해 읍면지역 간선도로와 동지역의 이면도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제설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1t용 소형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배정해 읍면동 생활민원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10일까지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제설자재 연화갈솔 800t, 소금 1000t, 모래 700㎥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사함 320개, 모래주머니 5만 5000개를 교량, 교차로, 고갯길 등 주요 도로에 배치해 동절기 대비에 나선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지난달 31일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완공 본격 가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소장 정병엽)에 전자선가속기와 기초부터 실증연구까지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이하 실증센터)가 구축돼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준공식을 가진 실증센터는 정부와 정읍시가 2014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90억원 (국비 13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입했다. 신정동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들어선 실증센터는 연면적 3864㎡ (지상 2층)의 규모에 10MeV와 2.5MeV 전자선가속기, 자동화설비, 각종 제작실 및 성능시험실 등을 포함해 약 2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구비했다. 특히 방사선을 활용한 소재산업의 핵심 연구 분야인 ▲산업용 첨단 소재 ▲의료·생명공학 ▲산업소재 ▲친환경소재 ▲항공우주·해양·국방 소재 등을 한자리

#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응모하는 천년전북!’

고창군, 내년 도민체전 슬로건 최종 확정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응모하는 천년전북!’ (사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최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2019년 5월 10일 고창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북도민체전의 슬로건을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응모하는 천년전북!’으로 최종 확정했다. 군은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에 접수된 23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포스터와 엠블럼, 슬로건 3개 부문에서 6점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청정함의 상징인 나뭇잎을 체육인으로 의인화해 표현했다. 아울러 다양한 컬러로 전북도와 고창군의 화합, 참여, 감동, 상생 등을 상징하고 있다. 슬로건은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강조하면서 기운차고 용기 있게 날아오르는 전북의 이미지를 함축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응모하는 천년전북!’으로 확정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 상징물 확정을 시작으로 2019년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200만 전북도민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6000만원)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